

장흥군, '장흥대교~터미널 4차선 확장' 이달 첫삽

국도 23호선-국도 2호선 연결 장흥군 교통 요충지 소관 중앙부처에 사업 필요성 지속 건의 최종 승인

장흥대교에서 장흥터미널 4차선 도로 확장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구간은 국도23호선과 국도2호선을 연결하는 장흥군 교통 요충지다.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신설 철도역사(가칭 정남진역)와 연결되는 도로로 앞으로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는 구간이다. 장흥군은 교통체증과 역주행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2차선 도로에 대해 4차선 확장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2019년부터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

며 지속적으로 도로확장을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장흥~유치 국도23호선 시설개량사업의 총사업비 변경(56억원 증액)을 통해 사업이 최종 승인됐다. 4차선 확장사업에 따라 도로계획선을 이탈한 메타세쿼이아 6주를 제거하고 기존 가로수는 존치 활용할 계획이며, 일부 구간은 추가 보식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발생된 주민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향후 교통량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흥군 관계자(건설도시과)는 "장흥대교~장흥터미널 4차선 확장 추진을 통해 물동량 및



교통량 증가에 선제적 대응하게 됐다. 지역 발전에 발맞춰 교통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노후 경유차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대기 환경 개선 11억 8천 원 투입

완도군이 노후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1억 8천만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7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24대)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로 완도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결정하고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 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매 시 5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최대 상한액은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만 원이고, 신차 구매를 무공해차로(전기·수소차) 구매할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 구입은 제외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완도=이민혁기자

진도군, 군민 안전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우수'

최고 2,000만원 보장...자연재해사망 등 군민안전보험 17개 항목 가입

진도군이 지난해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총 8건의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다. 군은 지난해 농기계사고 상해와 화재, 익사 사망 등으로 군민과 유가족 8명에게 총 5,5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전 군민 안전보험은 진도군이 보험사와 계

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성폭력 범죄 피해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은 3년째 시행 중이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애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 사망 등 총 17개 항목을 보장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사고 발생시 개별

가입 상해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당했어도 진도군민이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건물 붕괴 등 재난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 유형별 보험 혜택 제공으로 진도군 차원의 경제적 보상체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중소기업 가공 식품 검사비 지원 추진

자가품질·품질시험검사 등

해남군이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통한 생산 제품 품질 향상 제고와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가공 식품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중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가품질 및 수질검사, 품질시험검사 결과'적합'결과를 받은 업체로써, 소요사업비의 50%에 한해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견적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3월 11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1년도에는 총 49개 업체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검사 완료 후 청구를 거쳐 6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국토교통부 스마트복합센터 공모사업 선정

국비 20억 원 확보...분홍나무 일원 휴식·힐링 위한 공간 조성

강진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복합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4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스마트 복합센터는 도로 이용자 졸음쉼터에 지역홍보관, 특산물판매장 등 지자체 특화시설을 결합하고 사물인터넷(IOT),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다. 군은 강진읍과 마량향을 잇는 국도23호선의 중간경유지인 분홍나무 일원에 주차장, 화장실, 청자정원, 전기차충전소 등을 설치하고, 강진만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데크, 포토존을 조성해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더 쾌적한 쉼터를 제공한다. 3~4월 중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청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올해 상반기 중 쉼터의 설계를 구체화하는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홍나무 일원은 예부터 낙조(落照)의 명소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며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가우도와 청자촌과 연계돼 남해안 명소로 주목 받던 곳이다. 이승욱 군수는 "강진만의 푸른바다와 해안 절경의 고품격 경관으로 유명한 분홍나무 일원에 명품쉼터가 조성되면 지역자원 홍보 등 체류형 관광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분홍나무 관광자원화 사업에 34억 원을 투입

하고 있으며 기존 분홍나무 카페 증축공사, 전시관 정비를 2023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



강진 분홍나무 노을공원 스마트 복합센터 조감도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